

“마음으로 보는 악보...연주에 장애란 없어요”

광주출신 시각장애인 전문예술단 한빛예술단원 나나라 씨

연주가 시작된다. 깜깜한 어둠이 사라지고 환한 세상이 펼쳐지면서 지금껏 한 번도 본적이 없는 부모님의 얼굴이 나타난다. 함께 뛰놀던 친구의 모습이 지금껏 보고 싶었던 세상의 풍경들이 영화처럼 눈앞에 펼쳐진다. 꿈만 같지만 하다. 이제 연주가 끝나고 다시금 어둠이 찾아온다.

광주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시각장애인 전문예술단인 한빛예술단 관악브라스앙상블

에서 튜바 연주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각장애 1급 나나라(24)씨.

선천성 시각장애인인 나나라에게는 음악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본인과 단원들의 연주를 통해 나씨는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세상을 바라보고,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을 관객들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어머니 이정희(48)씨의 사랑이 나씨가 음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

7살 무렵, ‘장애를 가지긴 했지만 남들과는 조금 다를 뿐이다’며 세상이 행복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어머니의 권유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쉽지만은 않았다. 악보를 볼 수 없어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음 한음을 따라 피아노 건반을 눌렀다. 건반의 위치가 틀리면서 다른 음을 연주하기 일쑤였다. 악보를 녹음해 듣고 또 들었다. 나씨는 그렇게 음악과 인연을

맺었다.

음악이 주는 행복함에 점점 빠져든 나씨는 광주세광학교 중학생 시절 튜바의 낮은 음색에 반해 관악브라스밴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고등학교를 거쳐 한빛명학교 음악 전공과를 수료하고 지난 2009년 한빛예술단 부단원으로 입단한 뒤 지난해 정식 단원 오디션을 통과했다.

정식 단원이 됐지만 연주를 게을리할 수는 없다. 매년 오디션을 거쳐 실력을 검증받아야만 한빛예술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음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씨는 “항상 새로운 곡을 접할 때는 하루

이름씩 녹음해뒀던 곡을 듣고 또 들으면서 곡을 익힌다. 지휘자의 지휘를 볼 수 없어서 단원들과 호흡을 맞추기가 힘들기도 하다. 하지만 연주회가 끝나고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나오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관객들에게 항상 기쁨과 희망을 주는 연주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40여명의 시각장애인들로 이루어진 한빛예술단은 정년주회와 소외지역 찾아가는 음악회 등 연 130회가 넘는 연주회를 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전남대병원 약물관리센터 ‘표창장’

전남대병원 지역약물관리센터(센터장 고영일 알레르기내과 교수)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 약물관리사업단으로부터 2010년도 약물관리사업단 업무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수상 시집은 ‘윈의 부작용 보고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허형만 목포대 교수 ‘한국시인협회상’

한국시인협회(회장 이경철)는 제43회 한국시인협회상 수상자로 허형만(65·사진) 목포대 교수를 선정했다. 수상 시집은 ‘그늘이라는 말’.

또 ‘젊은 시인상’ 수상자로는 시집 ‘나무의 수사학’의 손택수(41) 시인이 선정됐다.

순천 출생인 허 교수는 중앙대 국문학과를 나와 1973년 월간 ‘문학’으로 등단해 ‘청명’, ‘풀잎이 하나에게’, ‘비 잠시 그친 뒤’, ‘첫 차’ 등의 시집을 펴냈으며 영남시문학상과 심연시문학상, 월간문학동시상, 전남도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다음달 19일 오후 3시 ‘문학의 집,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국악 신동’ 전주서 소리 배운다

유태평양군 전북대 전액장학생 3월 입학

“아이고 형님 박 터졌소, 아이고 형님 허리 부러졌소.”

1998년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당시 여섯 살에 불과하던 유태평양(19·전통예술고등학교 3년)군이 3시간 동안 관소리 ‘흥보가’를 완창해 국악계가 발칵 뒤집혔다.

‘국악 신동’으로 화제를 모았던 이 꼬마가 성장해 소리의 본고장인 전북 전주에서 판소리를 배운다.

유군은 3월 전북대 한국음악과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해 판소리를 전공한다.

정음에 고향인 유군은 생후 28개월째인 1994년 전남도립국악단의 정기공연 ‘별주부전’에서 사물놀이로 무대에 선 ‘국악 신동’ 두 살 때부터 인간문화재 조통달 명창을 사사하고 100차례가 넘는 공연을 했으며 1998년 10월에는 여섯 살이라는 한국 판소리 사상 최연소 나이로 흥보가 완창 무대를 여는 등 갖가지 기록을 남겼다. 판소리 완창은 내로라하는 명창들도 5~10년 공부한 뒤 도전할 정도로 어려운 작업이다.

흥보가 완창으로 유명해진 유군은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03년 3시간 30분 분량의 ‘수궁가’를 완창해 실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후 타악기를 배우려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4년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아프리카 윈시 리듬을 배우기도 했다.

유군의 아버지 유준열씨는 “여러 대학에서 입학 제가 들어왔지만 소리의 본고장에서 판소리를 배우고 싶다는 아들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군은 “소리의 본고장에서 판소리의 깊은 맛을 배우려고 전북대를 택했다”며 “꾸준히 공부해 세계인과 함께 판소리로 교감을 나누는 소리꾼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북취재본부=김승철기자 k0765@

“현장 애로사항 말씀만 하세요”

유태평 동구청장 현장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



유태평 광주시 동구청장이 지난 7일과 8일 오전 동구청 지하 1층 민방위교육장에서 현장근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구정발전에 대한 정책건의, 인사와 관련한 직원 사기 문제,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

민원봉사과 한 직원은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도 간혹 화를 내

고 ‘불친절하다’며 인터넷에 올려 난감한 경우가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고, 또 다른 직원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직원 복지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청장은 “상식에 맞지 않은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고, 소상히 설명해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재정이 어렵지만 추경 때 확보해 보겠다”고 답하는 등 직원들의 건의에 귀를 기울였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하춘화 공연 수익금 전액 ‘지구촌 나눔’ 기부

가수 하춘화가 데뷔 50주년 기념 공연 수익금 전액을 8일 이주민지원 전문기관인 (사)지구촌사랑나눔에 기부했다.

하춘화는 이날 오전 구로구 가리봉1동 지구촌사랑나눔에서 수익금 전달식을 갖고 지난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연 ‘다문화 가정 나눔콘서트-하춘화 리사이틀 50’의 수익금 1억2200여만원을 지구촌사랑나눔이 설립하는 ‘지구촌국제학교’ 건립에 쓰도록 전달했다.

지구촌사랑나눔 김해성 대표는 “다음 달 서울 오류동에 개교할 지구촌국제학교는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자녀 및 다문화 특성화 교육을 원하는 한국인 자녀를 위한 학교”라며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한국인으로 자립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

◆산업은행
 ◇팀장급 전보(성장기업금융본부) ▲군산지점 이형근 ▲목포지점 강현구

내방

▲김현성(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 사무처장)

함평 농어촌공 노인요양원에 생필품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지사장 오영록)는 최근 함평군 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

/서부취재본부=황운희기자 hwang@kwangju.co.kr

광산구청, 순직 소방장 유가족돕기 성금 전달



민행매 광산구청장과 직원들은 고드를 제거 작업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고 이석훈 소방장 유가족돕기 성금 모금 운동을 전개해 8월 유가족에게 전달했다.

/중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e@

안국산업, 요양원 방문 위문품



호남고속도로 안국산업(주)곡성(논산방향)휴게소는 최근 명절을 맞아 흥산보금저리 요양원을 방문, 사랑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안국산업 제공>

조선대, 고진석 교수 등 5명에 ‘취업멘토상’



진로·취업 멘토 교수제를 운영하고 있는 조선대(총장 전호중)가 8월 지난 1년 동안 학생 취업을 위해 된 교수들을 시상했다. 시상 대상자는 고진석 교수 등 5명이다.

<조선대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살아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오세광·정재희씨 차남 민석군 박원영(전 광주YMCA신협 이사장)·이의용씨 장녀 소현(경기고 구리교문초등학교 교사)양=12일(토) 오후 4시 서울상록회관 4층(그랜드볼룸)

향우회

▲재광 도암향우회 만남의 날=18일(금) 오후 6시 30분 라마다 프라자호텔. 010-3628-7468.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중고컴퓨터 기증하실 분=광주·전남도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중고 PC를 기증하실 개인, 단체, 기관 환영. (사)장애인복지회 광주·전남본부. 062-511-0030, 010-4666-2226

▲광주생명의 전화(실장 장석) 24시간 전화상담(1588-9191)=동구 지산동 716-30로 이전(지산교회 옆 교육문화관 1층)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일반 면접 상담, 위기 가족문제, 자녀문제, 자살 등 상담. 062-223-9191, 062-232-9192.

▲무료자선봉사는 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로 음향장비(엔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

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습관성도박(경마, 주사, 복권, 인터넷도박, 성인오락 등)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인터넷으로 주례신청=검색창에 ‘주례나라’를 검색하면 어디서나 결혼식에 검증된 주례선생님을 모실수 있음(단, 제주도·울산시 제외) www.jure.ck.kr, 061-245-3350.

▲프르네 학습증진컨설팅 저소득층자녀 무료상담=학교부적응, 성적부진, 성적저하, 교우관계, 정서장애, 게임중독 등. 010-6392-7137.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광주 번영 통역원=각종 서류, 무역·이민 비자 해외유학서류, 각종 메뉴얼, 특허번역, 논문초록 등 전문번역실 운영. 062-431-4788.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성폭력(의료, 법률, 상담지원), 청소년성상담 및 성교육 등. 062-673-1366, 062-671-4050.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부부갈등·가족갈등·체류·국적취득 등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할 때 자국어로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가 가능한 기관. 경찰, 병원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등이 요청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부음

▲김일두씨 별세 선친·선희(미술협회 나주지부장)·선춘·선희(에너지관리공단 지사장)·선규(동신고교사)·선희·숙자·미자씨 부친상 조인형·구희연·정광성(목사)씨 부친상=발인 10일(목)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한민수씨 별세 증촌·종희·동목씨 부친상=발인 10일(목) 조선대병원장례식장6분향소.062-231-8906.

▲정진순씨 별세 박해섭·해연·해규·해경·유남·금란씨 모친상 조옥렬·박유란·이문희·류숙경씨 시모상 김기수·윤성철씨 빙모상=발인 9일(수) 광주 송정장례식장 3분향소 062-941-4400.

▲치량자씨 별세 송준현·종오·치원·원희·영희·경희씨 모친상=발인 9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성희철씨 별세 명식·병식·명희씨 부친상=발인 9일(수)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이옥인 님(여/81세) 子/子婦: 설재석 / 윤정숙, 재복 / 윤순정 경양 / 한연순 女/婿: 설영숙 / 윤영근, 경양 / 한순용 미란 / 정삼민 • 호실401호 • 발인:2월 8일 • 장지:영락공원	故 이도래 님(여/92세) 子/子婦: 비기열 / 조영자, 준열 / 성희 / 최삼순, 성용 / 손인순 女/婿: 박경자 / 경숙 / 정병택 윤자 / 이종도, 숙자 / 김중섭 • 호실401호 • 발인:2월 10일 • 장지:영선포 선영
故 최순남 님(여/77세) 子/子婦: 전경범/윤성영 女: 전선희 • 호실301호 • 발인:2월 9일 • 장지:영락공원	故 박미옥 님(여/57세) 子: 최은석, 윤호 女/婿: 최지희/정순철 • 호실101호 • 발인:2월 9일 • 장지:영락공원

孝 금오장례식장 弔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謹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채찬기·성배·용배 씨 부친상 문진기·정성태·연락처:250-4405
 박태봉 씨 부친상 발인:2월9일(수) 09시00분
 장지: 보성군 벽래면 선영 연락처:250-4413
 ▲김근홍·김연중·조용철·주시원 씨 빙모상 발인 연락처:250-4406
 인:2월9일(수) 09시00분 장지: 담양군 고서면 08시30장지:나주 공산면 선영 연락처:250-4407
 ▲김영돈 씨 부친상 김혁·기철씨 모친상 발인:2월9일(수) 09시30분 00시00장지: 영락공원 연락처:250-4411
 장지: 담양 천주교 묘원 연락처:250-4410
 ▲김길남·김원·추천 씨 부친상 김남희 씨 부친상 수·김재영 씨 빙모상 발인:2월9일(수) 14시00분 발인:2월9일(수) 08시40장지: 영락공원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250-4412

그린장례식장 24시 대기 (062)250-4455